

보도 설명 자료 ('12. 6. 1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절전의 아이콘 휘들웃, 알고보니 사치 아이콘”
보도에 대한 입장 ('12.6.12일자 이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휘들웃의 자켓, 블라우스 가격이 89만원이나 하는 등 고가, 대표적인 전시행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‘휘들웃’(휘몰아치는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같은 웃)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‘쿨비즈/쿨맵시’의 우리말이며 특정 기업의 제품을 의미하지 않음
 - 그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휘들웃의 컨셉에 해당되는 제품을 입고 있었으며, 좀더 맵시있고 시원한 여름의상을 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이 휘들웃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·보급 중
 - * ‘휘들웃’은 자켓을 안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, 격식있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하고 시원한 여름의류 모두가 해당
 - * 상표는 한국패션협회의 확인을 거쳐 누구나 사용 가능(국민상표)

- ‘휘들웃’의 경우 패션협회를 중심으로한 T/F에서 한패션사업단, 코오롱, 동광, 패션산업연구원 등의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하여 제작(2월부터)을 하였으며,
 - 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
 - * 코오롱, 동광등의 경우 가격대가 다양한 의류를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, 일반적인 가격정책(정가판매-세일)을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됨
 - 특히, 보급형으로 제작된 한패션사업단(부산) 및 패션산업연구원(대구)의 여름의류는 4-6만원의 가격대
 - * 한패션사업단 및 패션산업 연구원 제품이 현재 공무원이 주로 구매하는 품목
- 또한, 공무원 복장 규정에 따라 여름철에 자켓을 입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김남규 과장 (02-2110-5381), 문철환사무관 (5653)